

2024년 9월

국내외 주식시장 전망

2024. 8

Executive Summary

01 미국 주식시장 전망

-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어 하락했던 글로벌 증시는 단기에 대부분 회복
- 9월에 예정되어 있는 다수의 이벤트(고용보고서 발표, 대선 TV토론, FOMC)는 증시 변동성을 높일 것
- 이벤트 소화 과정에서 단기 로테이션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동 과정에서 쓸림현상이 완화될 것
-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 단기 로테이션 국면에서 종목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P/F 다각화 필요
- 중장기적 매력도가 높은 성장주는 하락 시 비중 확대 권고

02 중국 주식시장 전망

- 미 대선 후보의 대중 정책 언급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음도 염두
- 내수시장 회복 지연, 제조업 및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기조 등은 지수에 악재로 작용
- 부진한 경기 지표는 역설적으로 적극적인 부양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강화하면 지수 하단을 지지
- 12MF 밸류에이션은 3년 평균치의 1표준편차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
-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경기부양책 기대감+밸류에이션 매력도를 감안 3개월 투자 의견을 N으로 상향

03 국내 주식시장 전망

- 연말까지 코스피 밴드 2,550~3,100pt 유지
- 미 대선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엔캐리 청산 우려감, AI섹터 수익성 우려 등은 증시 밸류에이션 확대를 제한
- 한편 9월 중 기업 밸류업 관련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과 견조한 이익은 국내 증시의 하단을 지지
- 이로 인해 한국 증시는 연말까지 박스권 흐름을 보일 전망이며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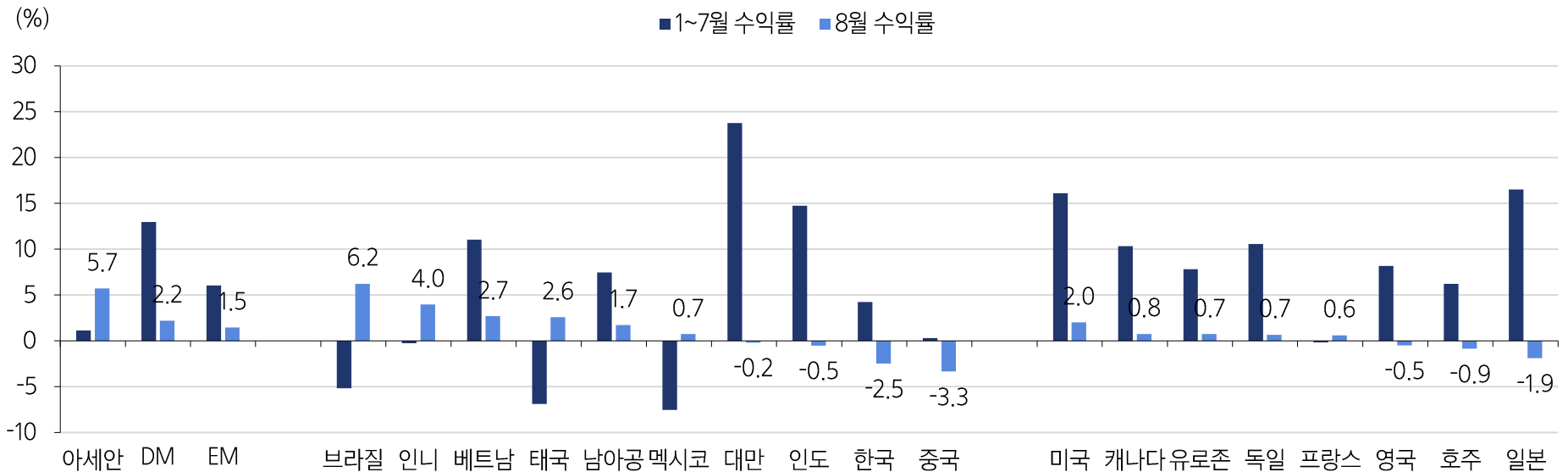
01

주식시장 전망(해외, 국내)

8월 글로벌 주식시장, 아세안 권역 국가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

- 8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아세안 국가들이 우수한 수익률 기록: DM이 EM을 아웃퍼폼
- 신흥국 내에서 브라질, 인니 등 원자재 수출국은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 대만 등 핵심 반도체 밸류체인 국가는 저조한 수익률 기록
- 한편 경기 둔화세가 부각되고 있는 중국은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낮은 수익률 기록
- 선진국 내에서는 미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주식시장을 주도한 가운데 일본 주식시장은 엔저 기조 둔화세가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

권역 및 국가별 주식시장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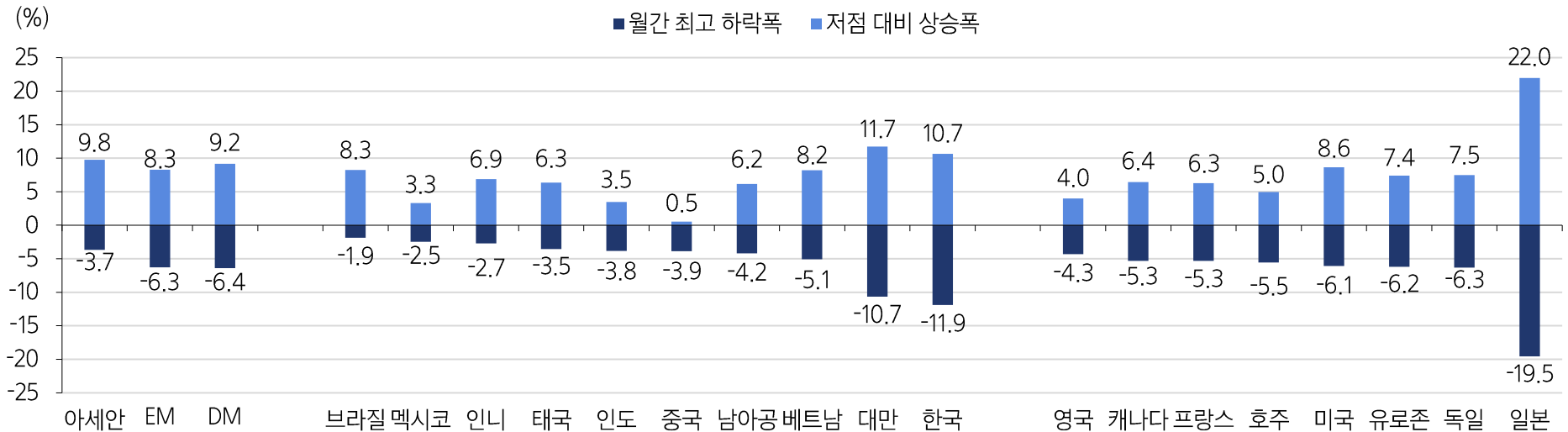


주: 8월 26일 기준, 지역은 MSCI기준 국가는 대표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어 하락했던 글로벌 증시는 단기에 대부분 회복

- 8월 5일 부진한 고용지표 발표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확대, 엔캐리 청산에 따른 자산 순매도세, 시섹터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제반 비용 증가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은 급락한 바 있음
- 급락했던 글로벌 주식시장은 부진한 고용지표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 엔캐리 청산 마무리, 실적발표에서 확인된 IT섹터의 비용절감 노력 등으로 V자형 반등이 단기에 나타남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부각되었던 8월 글로벌 주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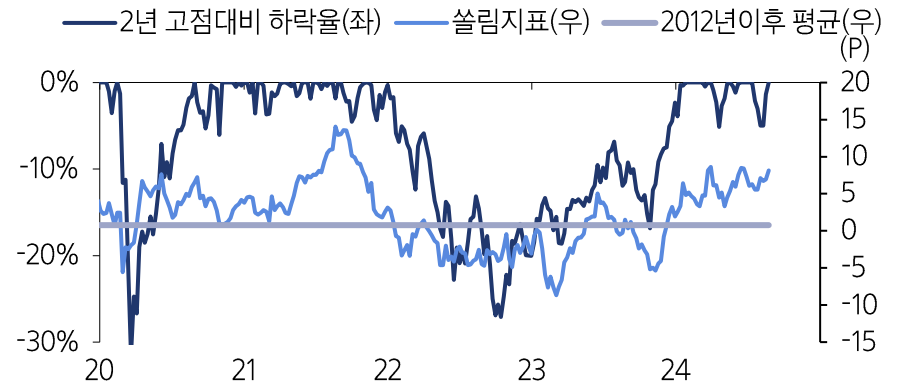
주: 8월 26일 기준, 지역은 MSCI기준 국가를 대표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단기 조정으로 쏠림현상은 완화되었으나, 재쏘림현상이 나타나며 증시 반등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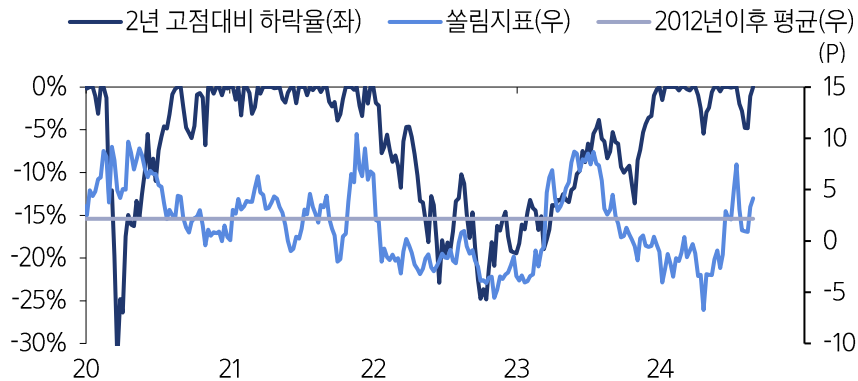
쏘림지표 계산 및 판단 기준

요인	기준	계산	쏘림 판단
Valuation	업종간 표준편차	업종/국가간 밸류에이션 표준편차(12MT PBR기준)	상승
	업종간 스프레드	밸류에이션 상위-하위 산업/국가간 괴리(FY0 PBR)	상승
Earning	어닝일드 표준편차	업종/국가간 어닝일드(12MF 기준)의 표준편차	상승
	어닝 리비전	업종/국가간 이익수정비율(12MF 기준)의 표준편차	상승
Momentum	수익률 상관계수	업종/국가간 주간 수익률 상관관계(PAIR-WISE, 24주 기준)	하락
Volatility	수익률 표준편차	업종/국가간 3개월 주가 상승률의 표준편차	상승
Liquidity	거래대금 표준편차	업종/국가간 거래대금/시가총액 12주 이평의 표준편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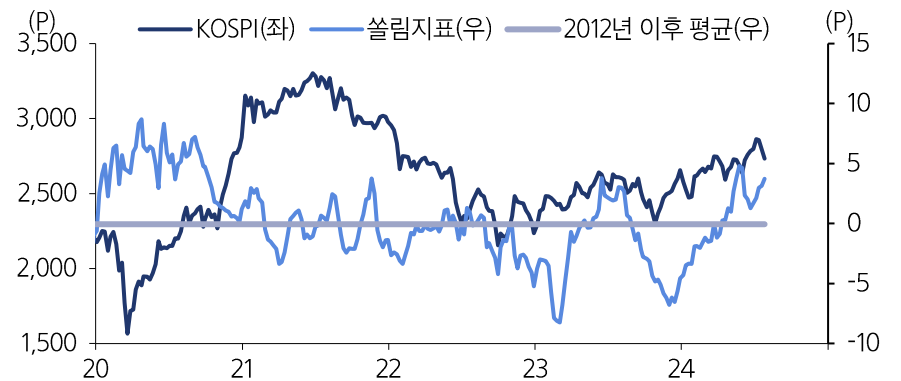
MSCI ACWI 국가간 쏠림현상



미국 쏠림지표



한국 쏠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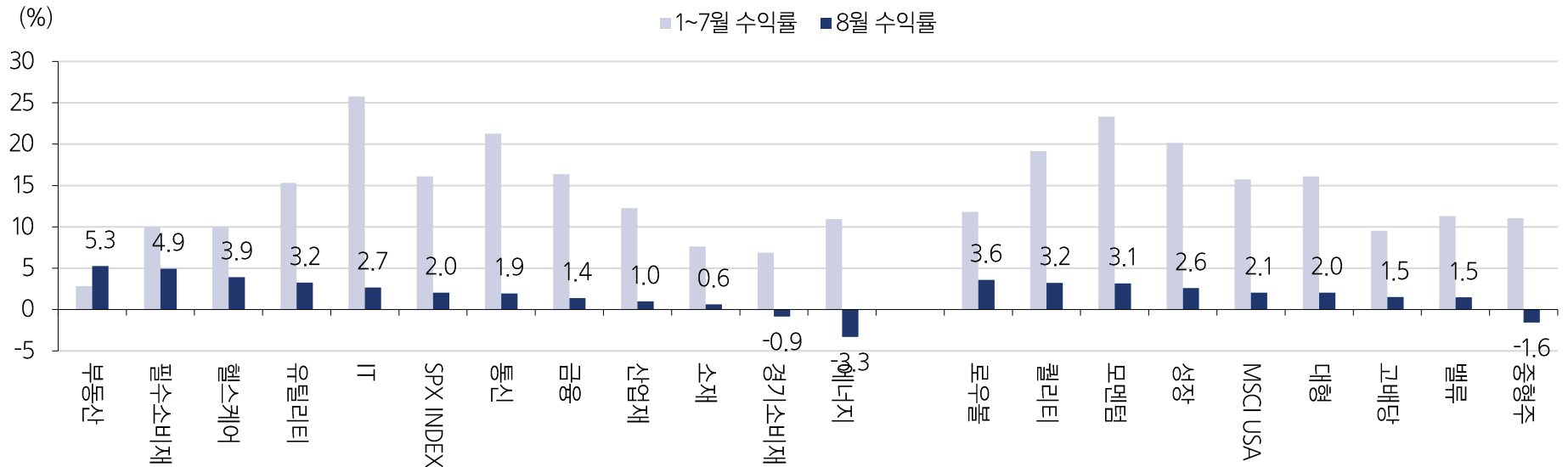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Refinitiv,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확대는 쓸림현상 해소의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

- 섹터별로는 부동산,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등 경기방어적 성격의 섹터가 높은 수익률 기록
- 쓸림현상을 주도했던 IT 섹터는 경기 침체 및 비용 증가 우려 부각되며 급락 후 반등: R의 공포는 쓸림 현상 해소의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
- 스타일별로는 8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았던 만큼 로우볼 섹터가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

미국 섹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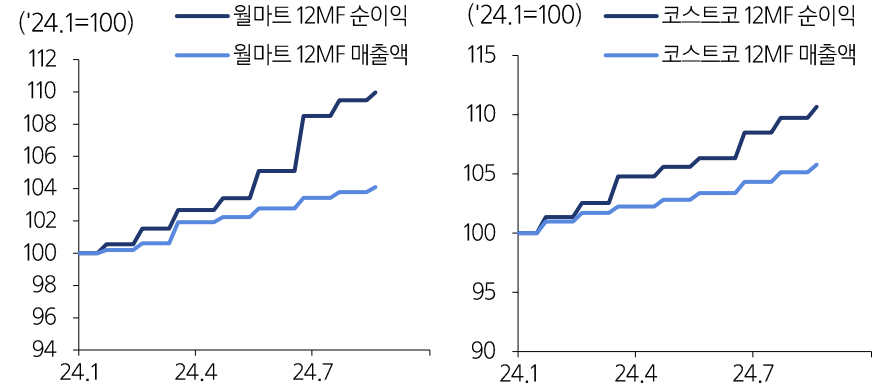


주: 8월 26일 기준, 지역은 MSCI기준 국가별 대표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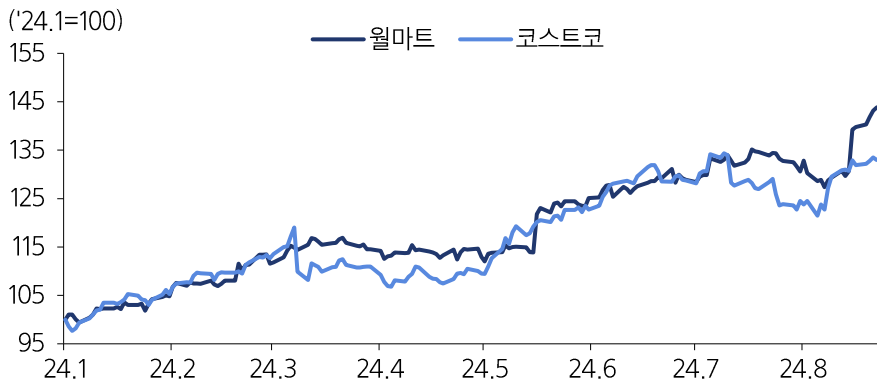
고용시장발 경기침체가 부각되는 가운데 불황형 소비 관련주들이 부각되었음

- 월마트와 코스트코의 연초대비 수익률은 각각 44.1%, 33.2%로 빅테크 기업인 알파벳(18.6%), 애플(17.8%), 아마존(16.5%), MS(10.8%)를 아웃퍼폼
- 박리다매 전략을 구사하던 대형마트들의 매출 및 순이익은 우상향. 상품 할인에도 불구하고 순이익률은 우상향 지속
- R의 공포는 미국인들의 소득 감소 및 실질 구매력 감소 우려감을 높였음. 소비자들은 저렴한 제품 또는 할인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
- 할인 대형마트의 강세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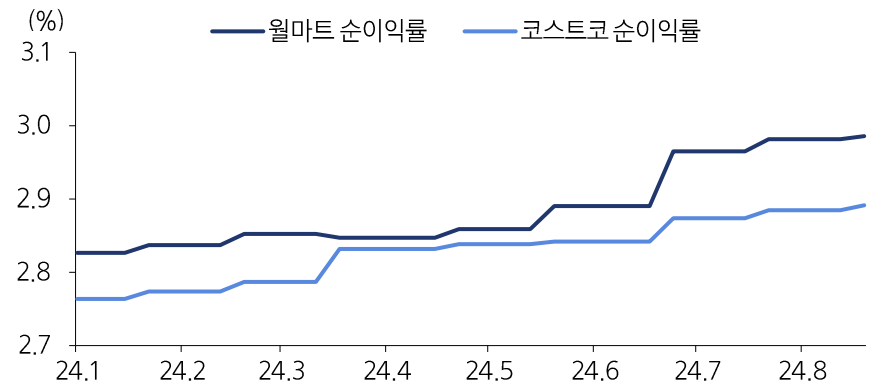
대형마트의 매출 및 순이익은 크게 증가



월마트, 코스트코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



상품 할인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마진율



자료: Refinitiv,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9월에 예정되어 있는 다수의 이벤트는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높일 것

일자	이벤트	시장 영향 및 전망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SMC의 7월 실적 감안 AI 반도체 실적은 양호할 전망 - 엔비디아 매출 모멘텀 유지는 AI산업의 캐즘 우려 완화와 민간 투자 지속성을 확인시켜 줄 것 - 다만 단기 차익실현 욕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
9월 6일	미국 9월 고용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8월 실업률은 7월 4.3%에서 크게 하락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도 낮음 - 실업을 추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를 가속화 시킨다는 점에 주목 - 향후 경기 침체 우려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확대 시킬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
9월 10일	미국 대선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리스의 지지율 상승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음 - 9월 토론회 결과에 따라 대선 후보 관련 단기 트레이딩이 나타날 수 있음: 슐림현상 해소
9월 19일	FOM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연준의 인하가 현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은 인하 속도가 될 전망 - 통화정책의 정상화(25bp) VS 침체 대응(50bp)가 핵심이 될 전망 - 금융시장은 빅컷 보다는 단계적 금리 인하를 선호할 것

미국 주식시장

기준금리 인하: 금리 변동성 확대만 아니면...속도가 중요

9월 FOMC는 주식시장 밸류 확장 요인이 아닌 하단 지지 요인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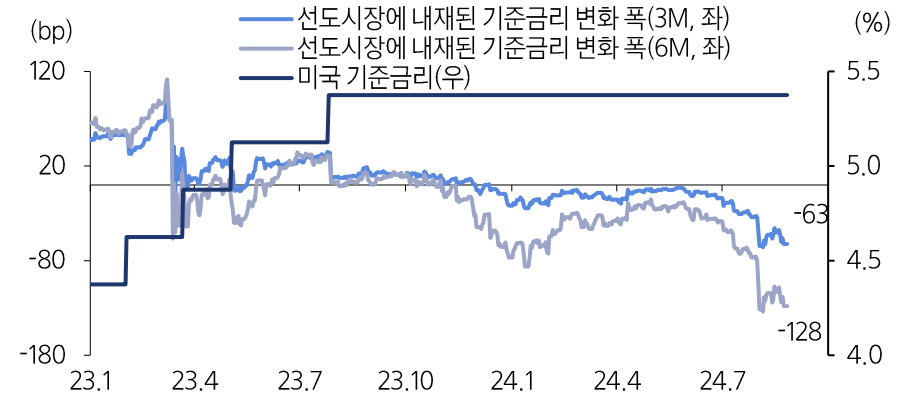
-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리인하 여부가 아닌 금리 인하 속도라고 판단
- 과거 사례에서 완만한 금리인하는 금리 변동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급격한 인하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며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바 있음
- 선도시장에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반영 분은 60bp(2회)
- 당사 리서치센터는 연말까지 연준이 3회 인하할 것으로 전망
- 9월 FOMC는 주식시장 밸류 확장 요인이 아닌 하단 지지 요인일 것

구분	24.1Q	24.2Q	24.3Q F	24.4Q F
기준금리	5.5	5.5	5.25	4.75
2년 금리	4.48	4.83	4.2	3.8
10년 금리	4.15	4.45	4	3.8
2/10년 Spread	-33	-38	-15	0

금리 변동성은 주가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



시장은 3개월내 60bp(2~3회)를 반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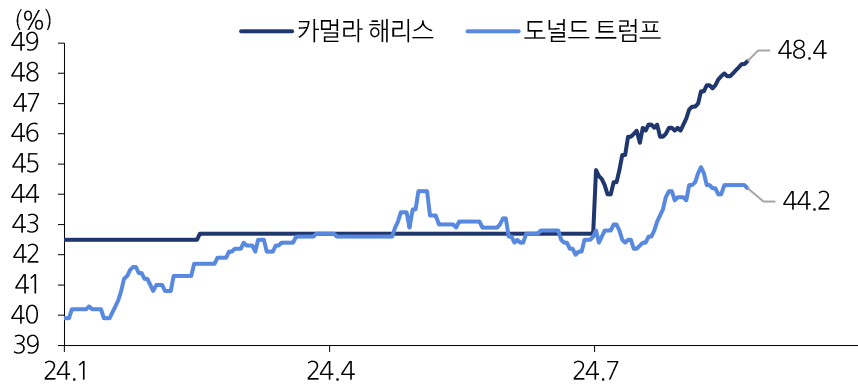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TSM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미국 주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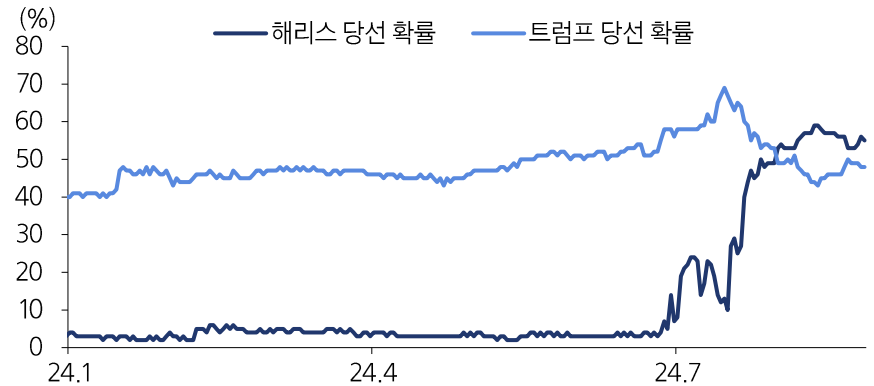
TV토론을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대선후보 트레이드

트럼프와 카밀라의 지지율이 박빙이라는 점에서 9월 TV토론은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일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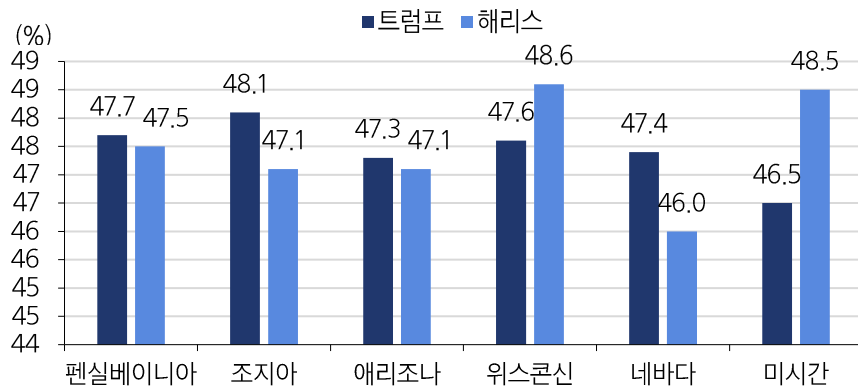
트럼프 vs 카밀라 지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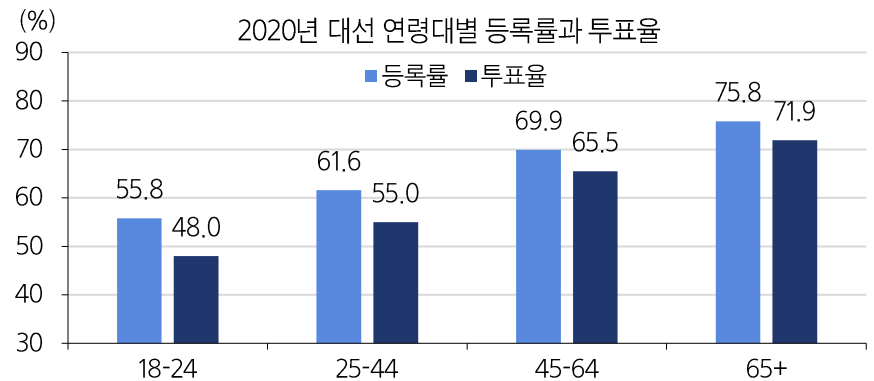
트럼프 vs 해리스 당선 확률 추이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지지율은 박빙



등록수는 많으나 투표율이 낮은 젊은층이 부각되면 해리스에 유리



주: 8월 22일 기준, 자료: Refinitiv, TSM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미국 주식시장

대선 공약으로 예상하는 해리스 트레이드

Cost of Living	식료품 가격 인하	①식품 및 식료품 가격 인상에 대한 연방 금지 조치, ②가격 경쟁을 저하하는 기업의 합병 감시 강화, ③대형 음식료, 유통기업들의 마진 회수	수혜: 불황형 소비 관련주 피해: 음식료
	주택 공급	①4년 간 3백만 신규 주택 건설, ②최초 주택 구매자 25,000달러 지원 ③주택건설 지원기금 500억달러로 확대, ④저가 주택 건설사 세제 우대	수혜: 건설 및 건자재
	처방약 가격 인하	①인술린 35달러 가격 상한 제도 도입 및 처방약 부담금 2천달러 제한, ②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범위 확장, ③제약사의 비용 인상 압박 단속	피해: 제약(인술린)
	친환경 에너지 투자	①IRA 정책 유지, ②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지급 유지 ③2030년까지 신차 중 50% 전기차 목표	수혜: 친환경 에너지, 전력 피해: 원유 인프라
재정정책	세금	①조세피난처 종식 및 법인세 인상(21% → 28%) ②1억달러 이상 재산 보유자 대상 25% 세금 부과	
	복지	①자녀 세액 공제 3,600달러 복원, ②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 가구 추가 세금 부담 X, ③근로소득세액공제 6,600달러 복원, ④ No Tax on Tips	
제조업 및 인프라	제조업 육성	①인프라투자법(IIJA) 기반의 인프라 업그레이드 지속, ②노동 조합 중심의 제조업 일자리 생성, ③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	수혜: 산업재, 소재, IT
	공급망 리쇼어링	①CHIPS ACT 활용한 공급망 리쇼어링 정책 유지하며 중국 견제 ②생물보안법 통과로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증진	수혜: IT 및 헬스케어(알츠하이머 및 항암 치료제)
외교 및 이민	동맹 관계	①NATO를 비롯한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②국방 투자 지속하는 가운데 장비 현대화 및 미국내 방산 공급망 확충	수혜: 국방
	합법적 이민 유도	①이민개혁안 통화 시도 및 국경 안보 투자 강화 ②기존 불법 이민자에 대한 합법화 시도	

미국 주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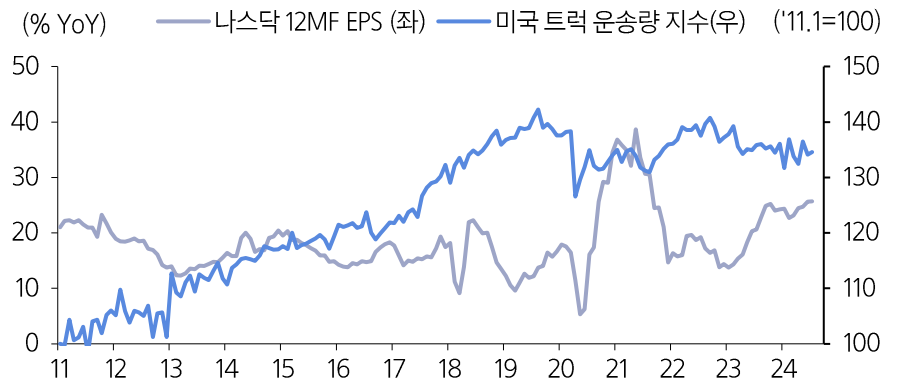
투자가 주도하는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 AI산업 투자의 중요성 feat. NVDA

투자 주도 경제 성장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엔비디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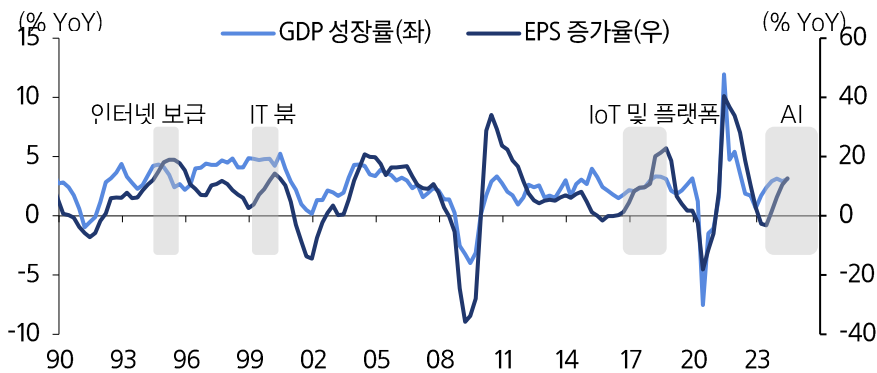
고용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기업 이익은 지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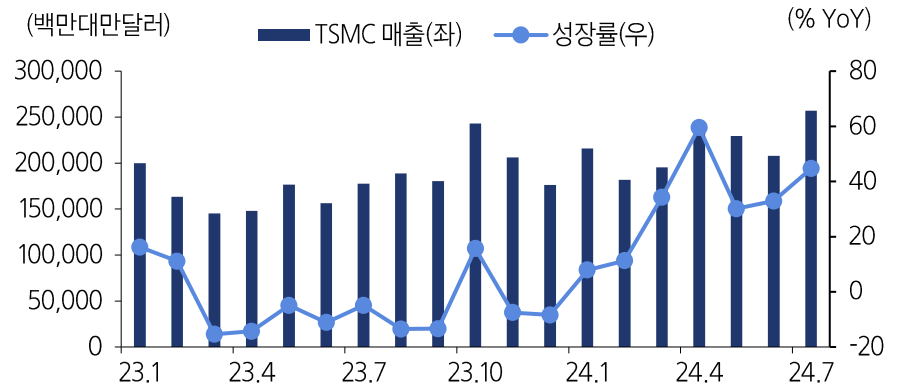
매크로 보다는 테크혁신에 따른 이익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AI섹터가 주도하는 미국 경제 성장 국면이 지속될 수 있음



TSMC의 7월 매출 성장률은 양호 → 엔비디아의 이익 성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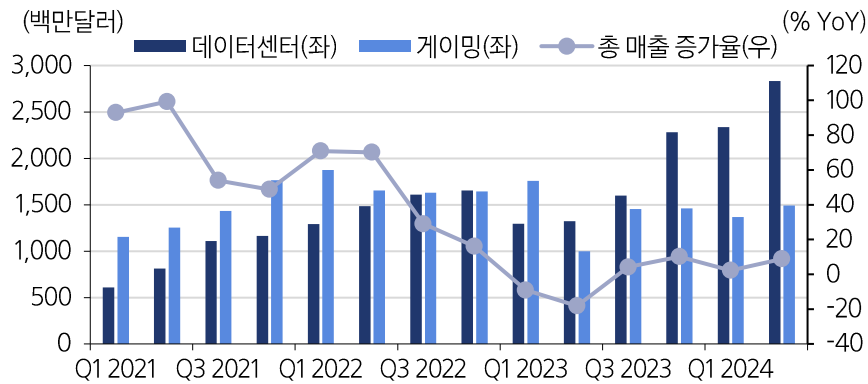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TSM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미국 주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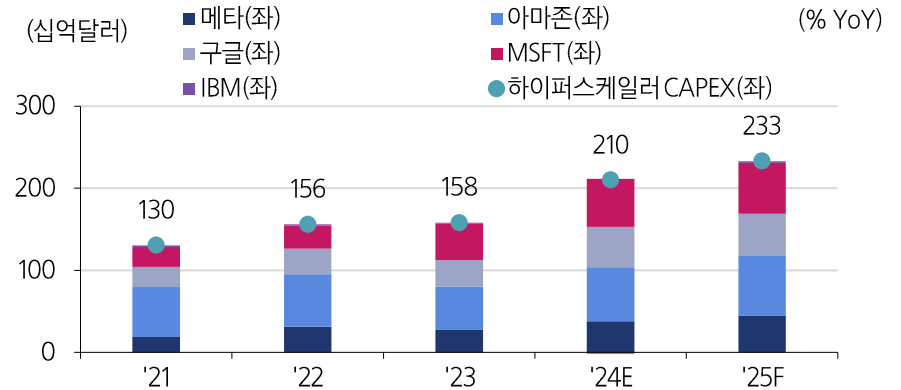
기술주의 중장기적 이익 성장세는 견조할 전망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견조: 빅테크의 비용 우려는 과도하며 이익 주도력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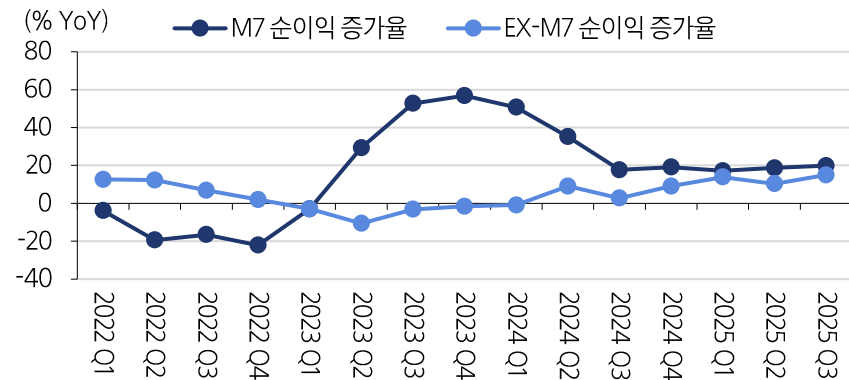
AMD 실적에서 확인된 반도체 수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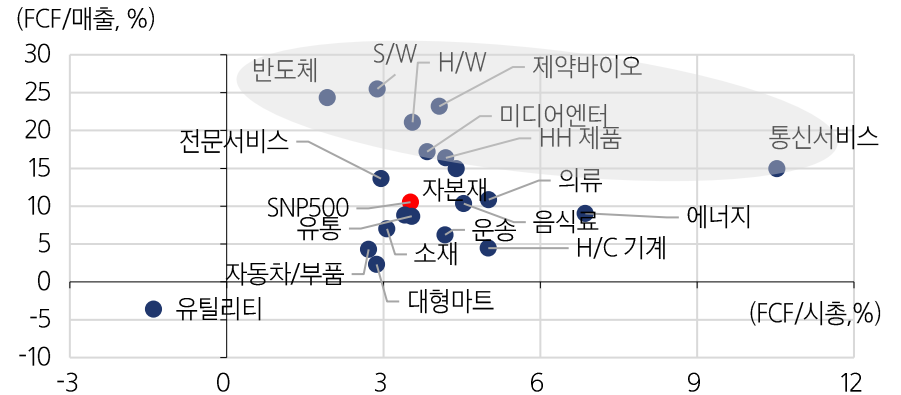
하이퍼스케일러의 CAPEX 투자는 지속될 전망



빅테크 기업의 이익 주도력은 지속될 전망



IT의 양호한 현금흐름 → 제반비용/감가상각비 증가 우려 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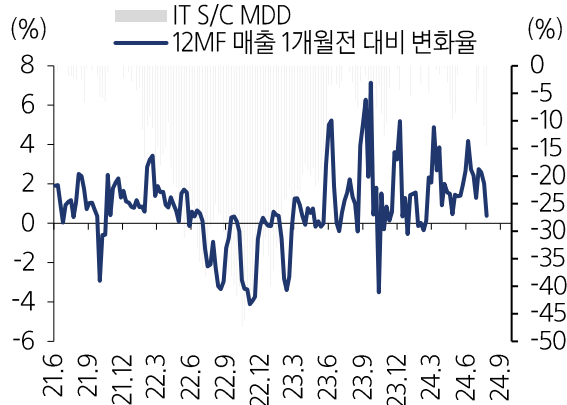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미국 주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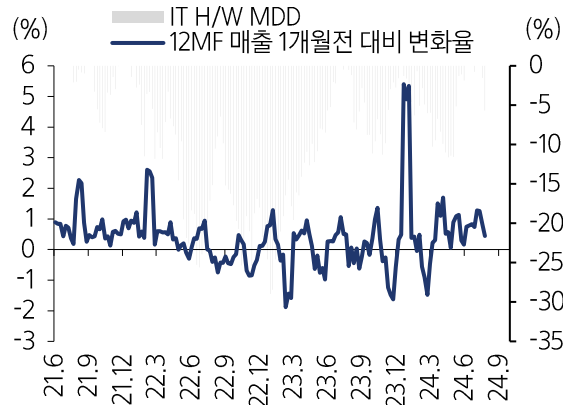
가격조정 가능성? 이익 하향조정이 약하다

성장주의 의미있는 매출액 및 EPS 하향 조정 부재: 반도체 매출 및 이익 하향은 모니터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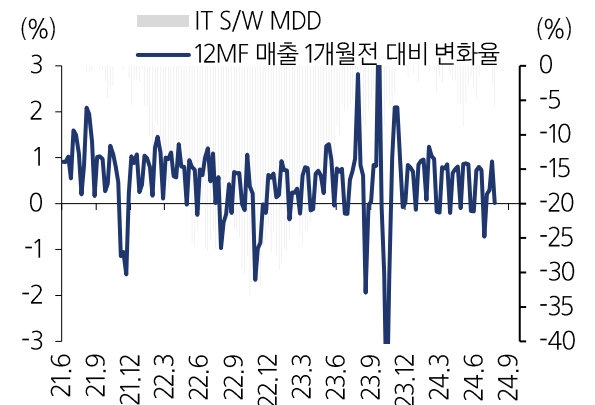
반도체 매출 단기 변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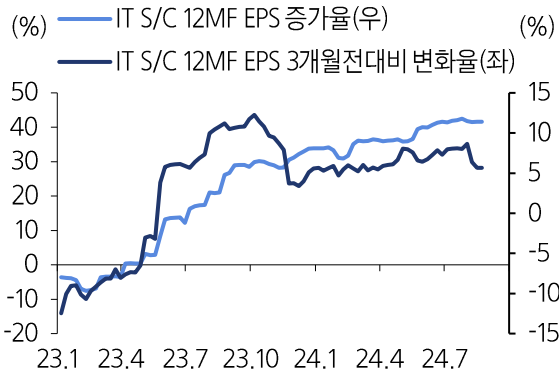
IT H/W 매출 단기 변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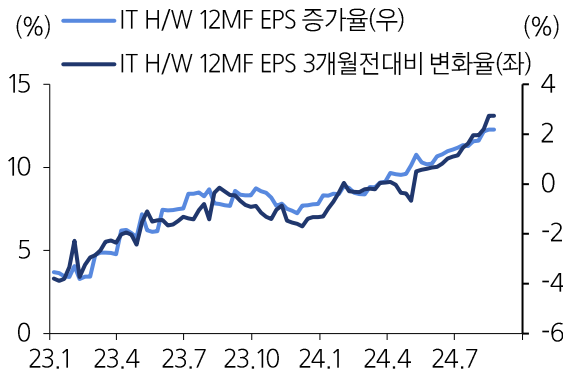
IT S/W 매출 단기 변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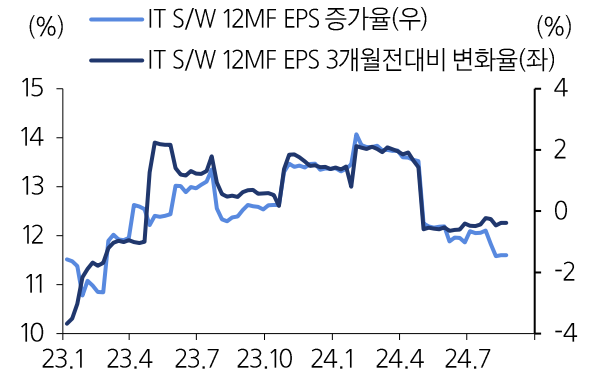
반도체 이익 증가율과 변화율 추이



IT H/W 이익 증가율과 변화율 추이



IT S/W 이익 증가율과 변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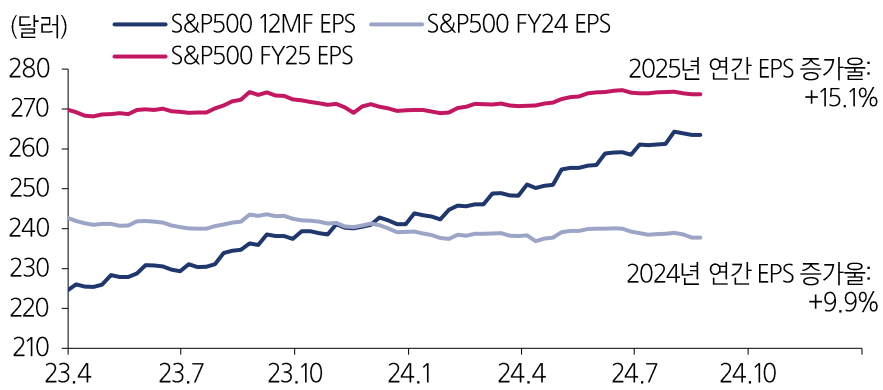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미국 주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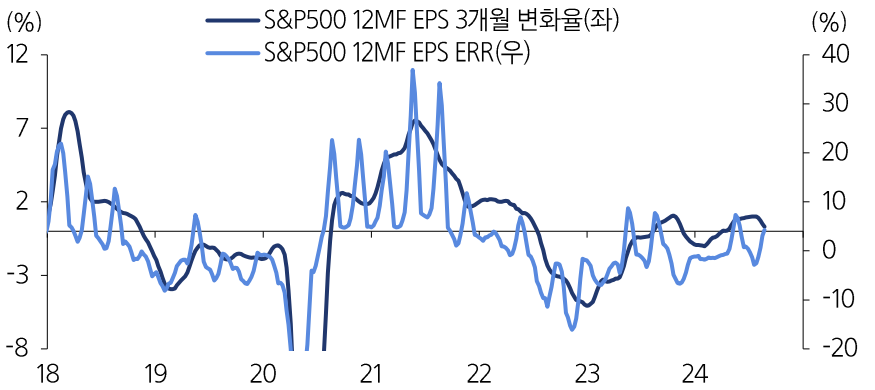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더 매력적인 국면은 지속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은 높으나 이익 성장세를 고려하여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매력적인 국면 지속

2024년 연간 EPS는 연초대비 하향조정, 2025년 이익은 우상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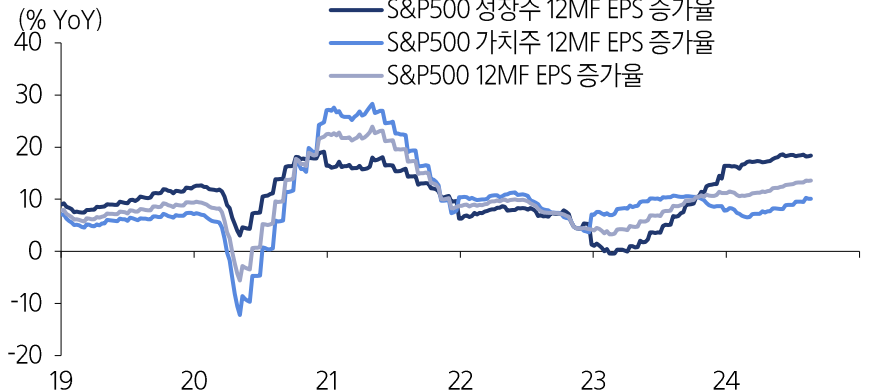
이익수정비율의 변동성 완화 및 반등세는 증시에 긍정적



성장주의 실적 상향조정세가 나타나



성장주의 12MF EPS 증가율은 가치주를 상회



자료: Refinitiv,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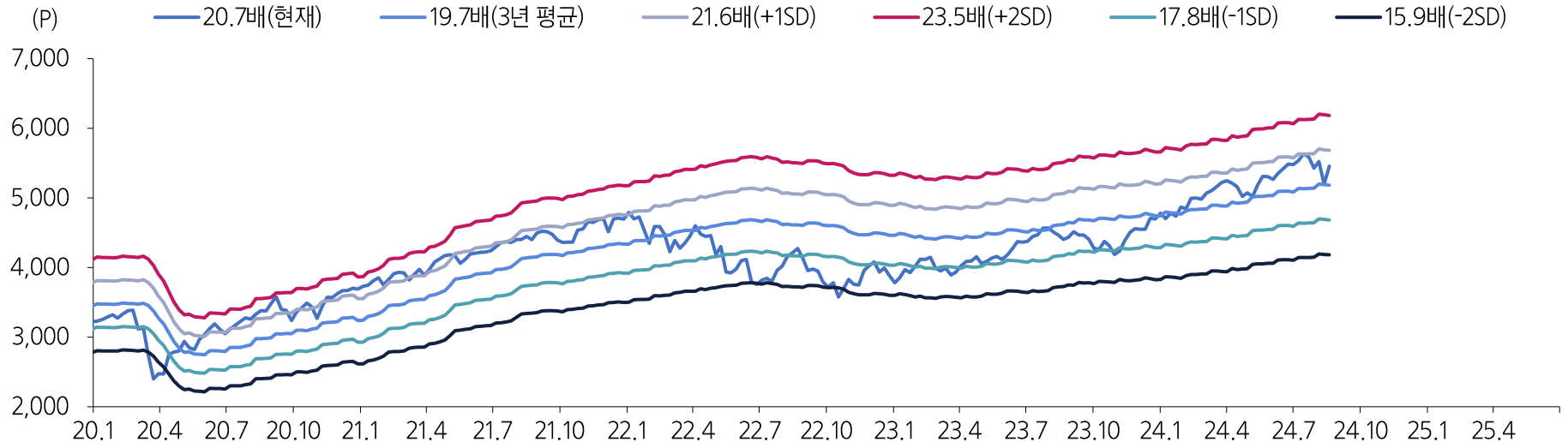
미국 주식시장

단기 로테이션 국면에서는 종목장세가 예상 → P/F 다각화 필요

미 대선 → 통화정책 → 엔캐리 등 단기 섹터/테마 로테이션 예상: 동 국면에서 지수 상승은 제한적

- 주가 상승 피로도가 누적된 가운데 9월 대내외 이벤트들은 주가의 상단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기준금리 인하, 성장주의 이익 성장세 등은 추가 밸류에이션 확장보다는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단기 로테이션이 순환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동 과정에서 쓸림현상이 완화될 것
-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의견은 중립으로 유지
- 단기 로테이션 국면에서는 종목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 매력도가 높은 성장주도 편입할 필요

S&P500 밸류에이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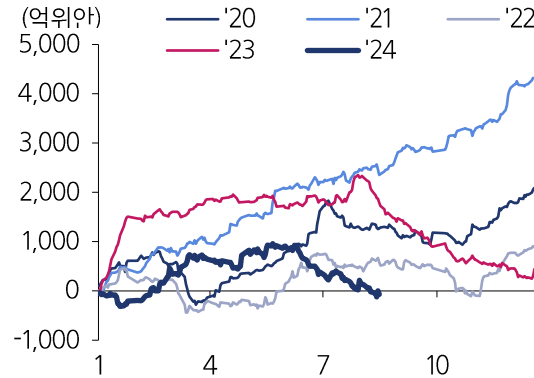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중국 주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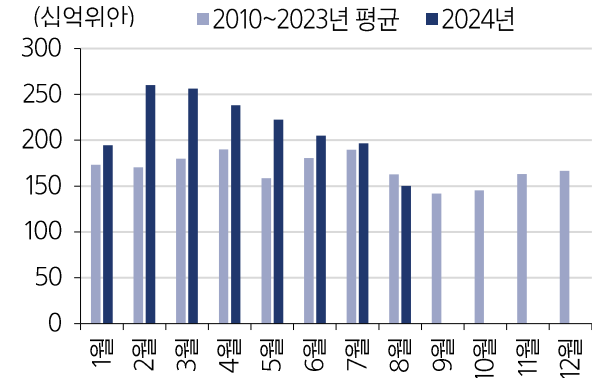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중국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 급락 시점에서도 하락하지 않았으나, 이는 중국 주식보다 채권에 더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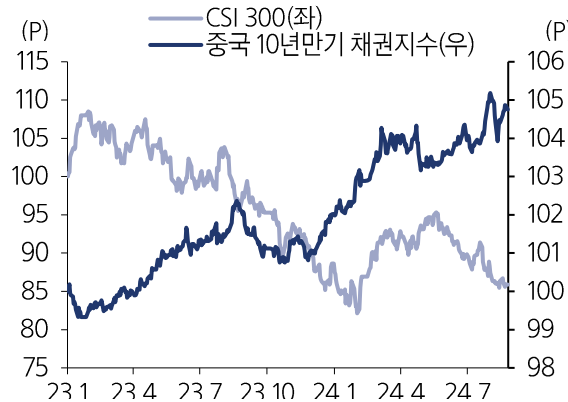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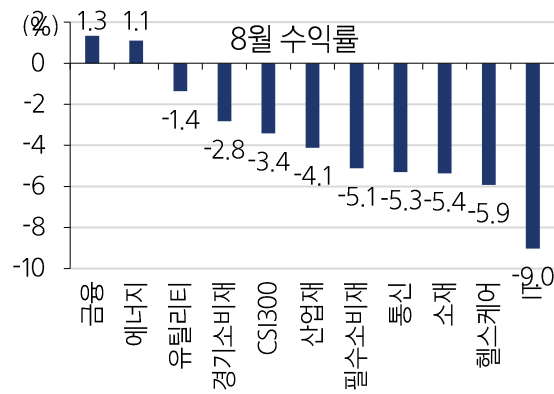
중국 증시, 하락폭도 적은 만큼 반등도 약해: 외국인 연간 누적 순매수 (-) 전환



거래대금 추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 주식보다는 채권, 성장주보다는 배당주



비싸진 은행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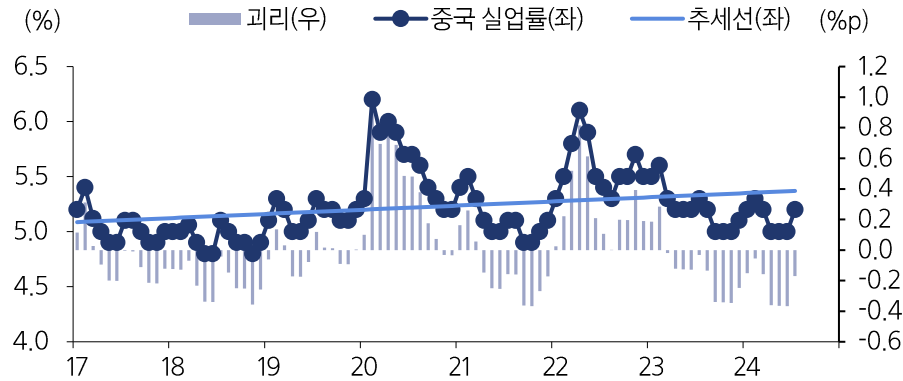
주: 7월 22일 기준, 자료: Bloomberg, Refinitiv,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중국 주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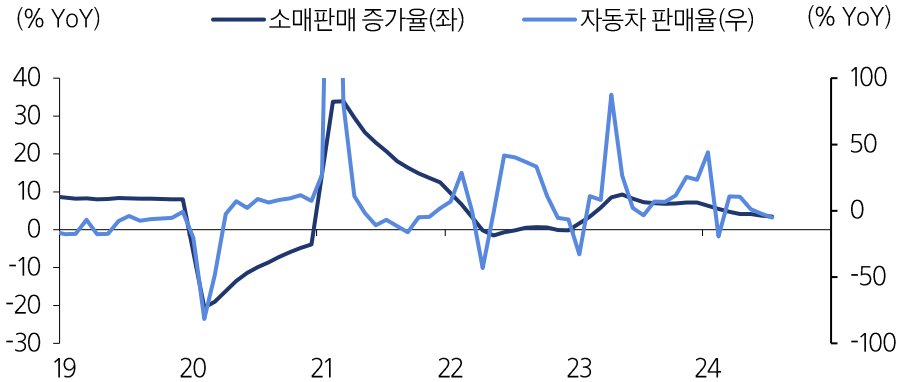
불안한 경기는 청년들의 취업의지와 기업들의 채용의지를 위축 → 내수 회복 지연

내수시장 회복 지연 및 제조업 지표의 컨센서스 하회는 중국 경기 부진의 장기화를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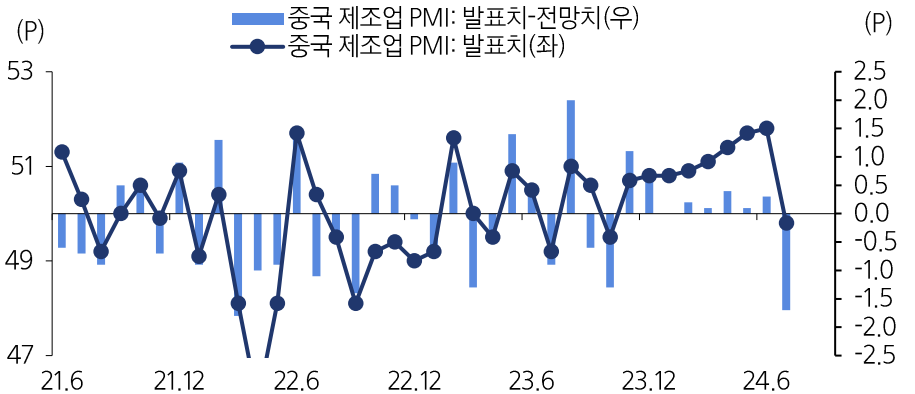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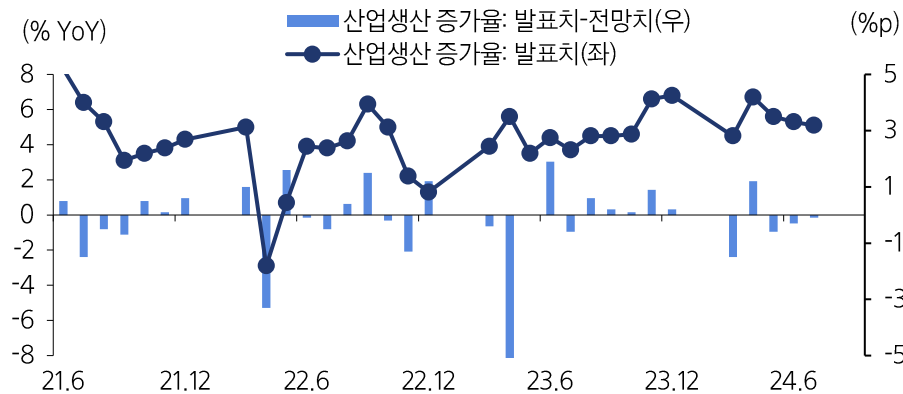
중국 명목 및 실질 경제 성장률 추이



실업률 상승으로 내수시장 회복은 지연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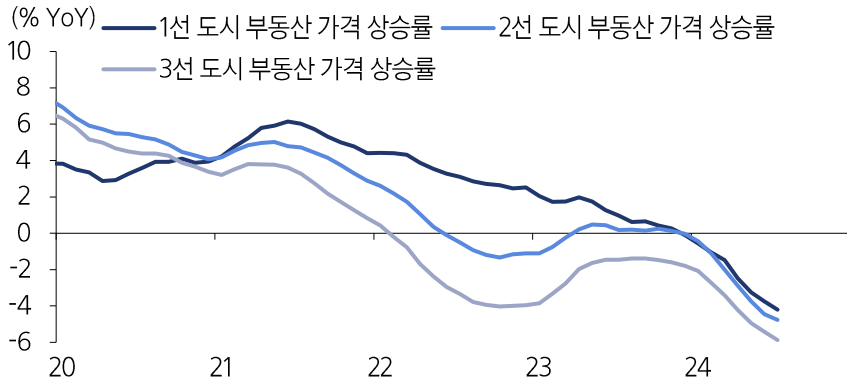
산업생산은 지속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있으며 PMI는 50선 하회: 제조업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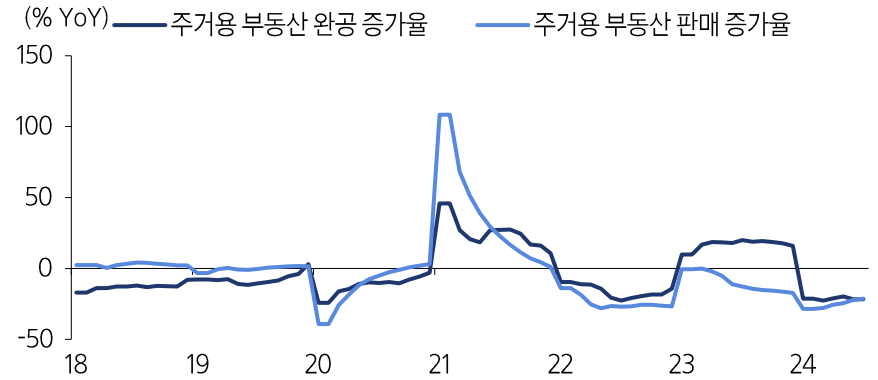
자료: CEI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다양한 부동산 부양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 유동성이 바닥을 다질 기미가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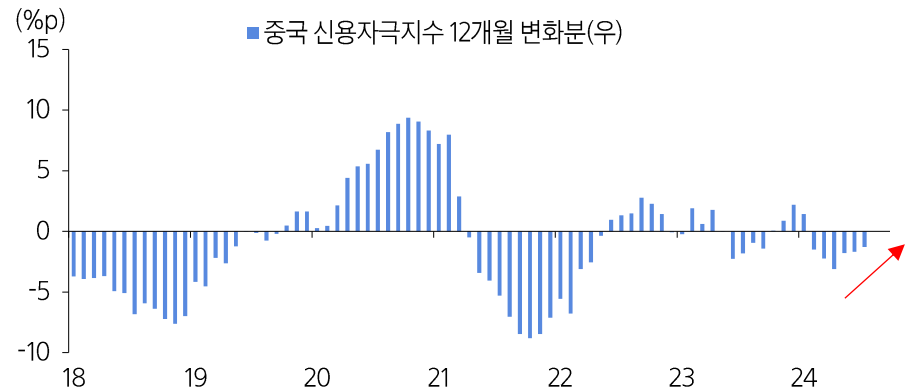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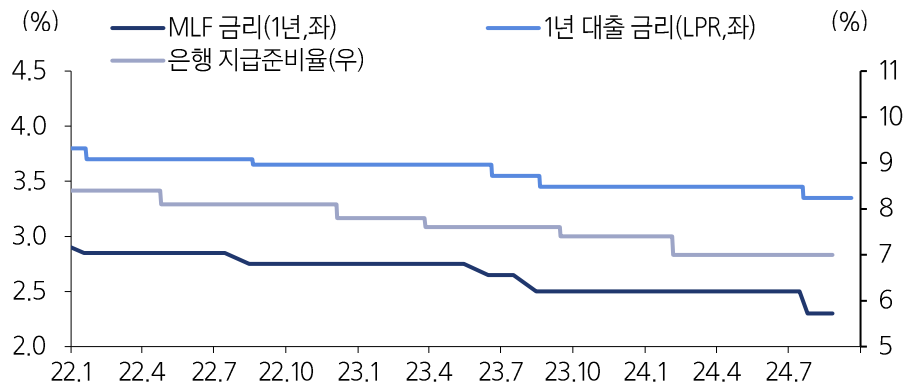
부동산 가격은 지속 하락



주거용 부동산의 완공과 판매 증가율은 (-)권을 유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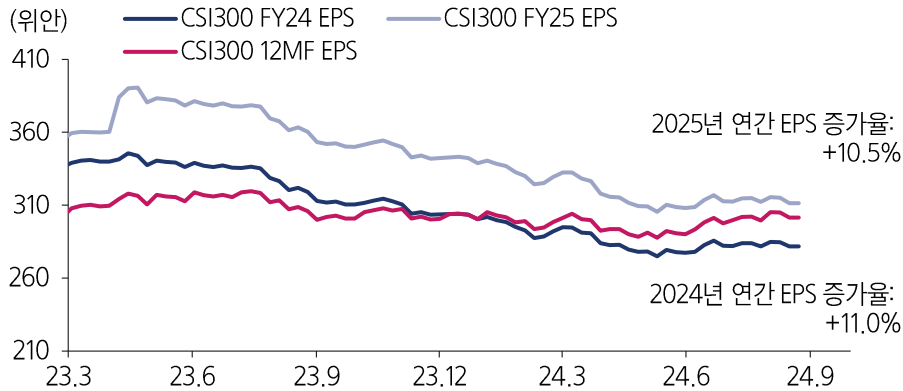
정부의 유동성 공급 골자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장 유동성 지표가 바닥 다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자료: CEI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이익 저점탐색 구간이 진입했으나, 최근 부각되는 경기 둔화 우려감은 이익 전망의 하향 압박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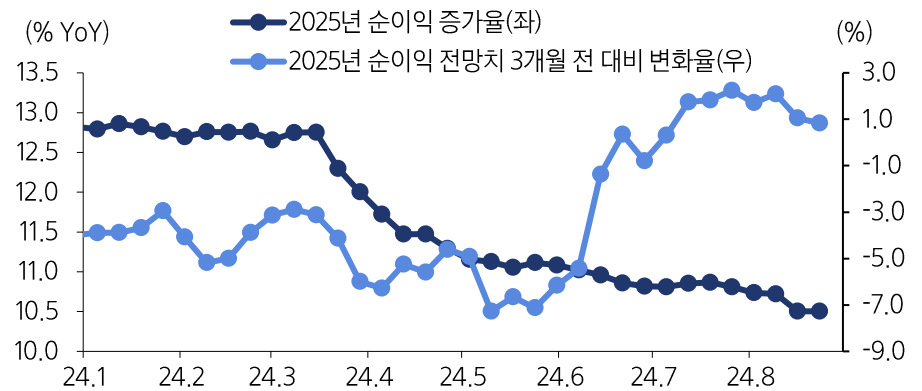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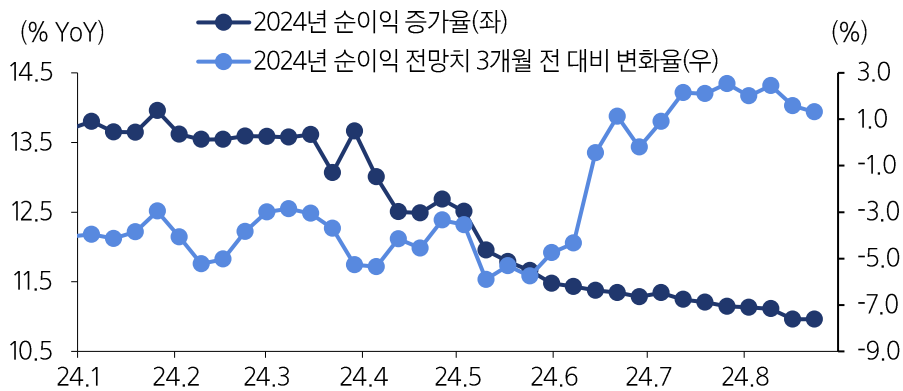
EPS 증가율 전망치는 저점 다지기 시도 중



3개월 대비 12MF EPS 변화율은 (-)이지만 반등 기초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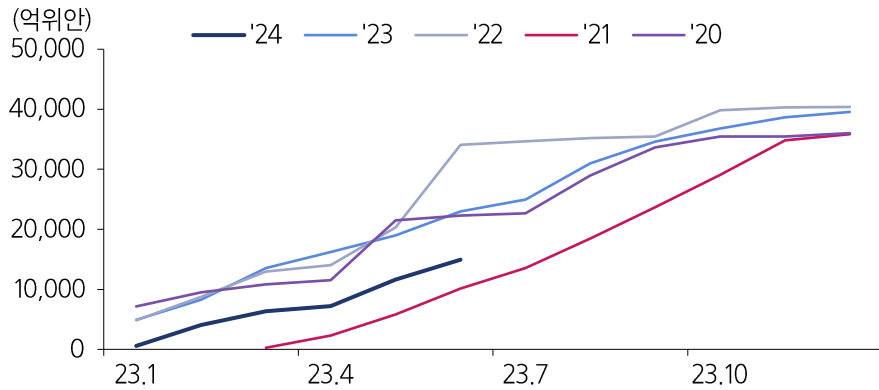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됨에 따라 2024년 및 2025년 순이익 전망치 상향조정세는 마무리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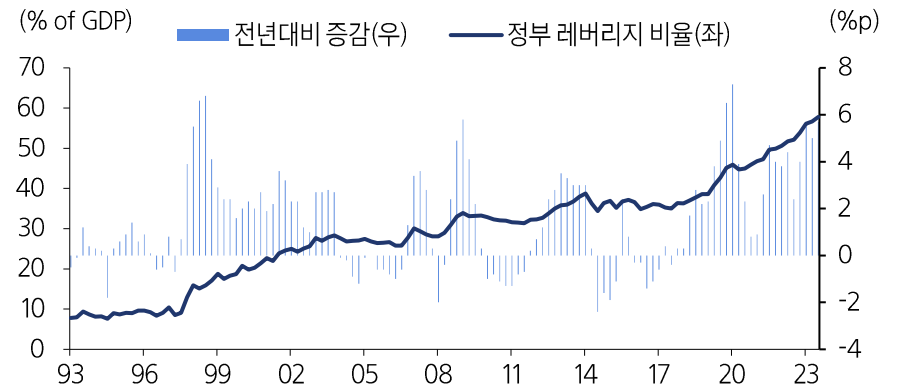
주: 8월 26일 기준, 자료: Bloomberg, Refinitiv,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부진한 경제 지표는 오히려 추가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 주가지수의 추가 하락을 방어

예상보다 느린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4분기 가속화 예상



정부의 추가 확장적 기조가 지속될 수 있는 국면



4분기는 정부의 목표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시점

통화정책

- 인민은행 LPR, 기준율 추가 인하
- 신용 공급 확대 유지

부동산 정책

- 부동산 개발업체 자금 조달 지원
- 모기지 금리 하향
- 미분양 주택 구매 확대

재정정책

- 특수채 발행을 통한 경기부양
- 이구환신 확대
-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

산업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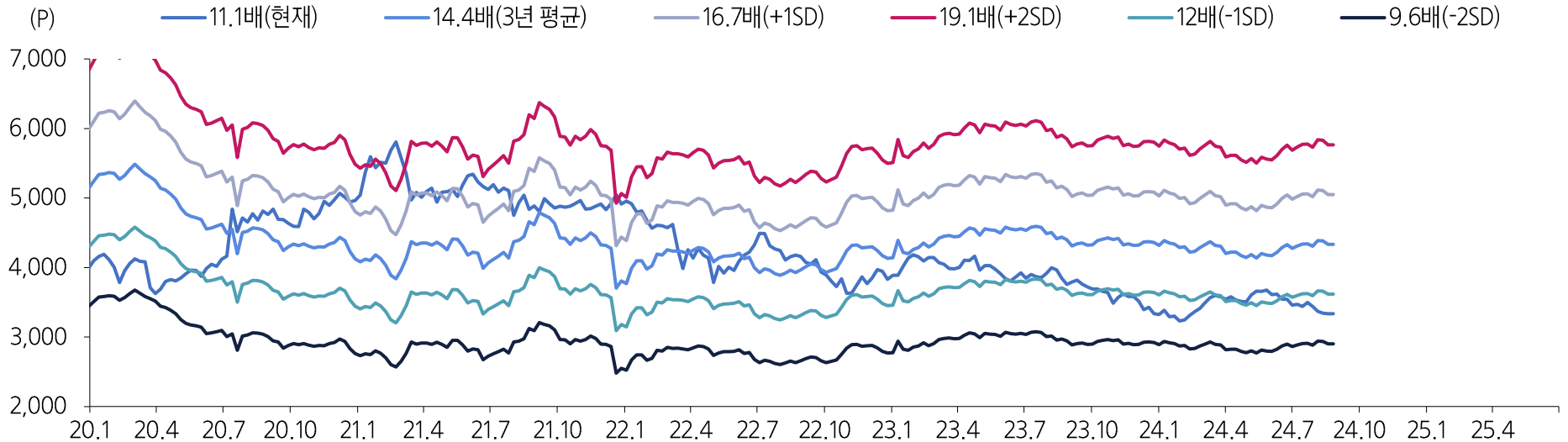
- 국유기업 기업가치 제고 정책 강화
- 증시 활성화 정책
- 공급 과잉 구조조정 정책
- AI 및 테크 육성 정책

자료: CEI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경기부양책 기대감+밸류에이션 매력도를 감안 3개월 투자의견을 N으로 상향

- 미 대선 후보의 대중 정책 언급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음도 염두
- 내수시장 회복 지연, 제조업 및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기조 등은 지수에 악재로 작용
- 부진한 경기 지표는 역설적으로 적극적인 부양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강화하면 지수 하단을 지지
- 12MF 밸류에이션은 3년 평균치의 1표준편차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
-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경기부양책 기대감+밸류에이션 매력도를 감안 3개월 투자의견을 N으로 상향

CSI300 PER 밴드



자료: Refinitiv,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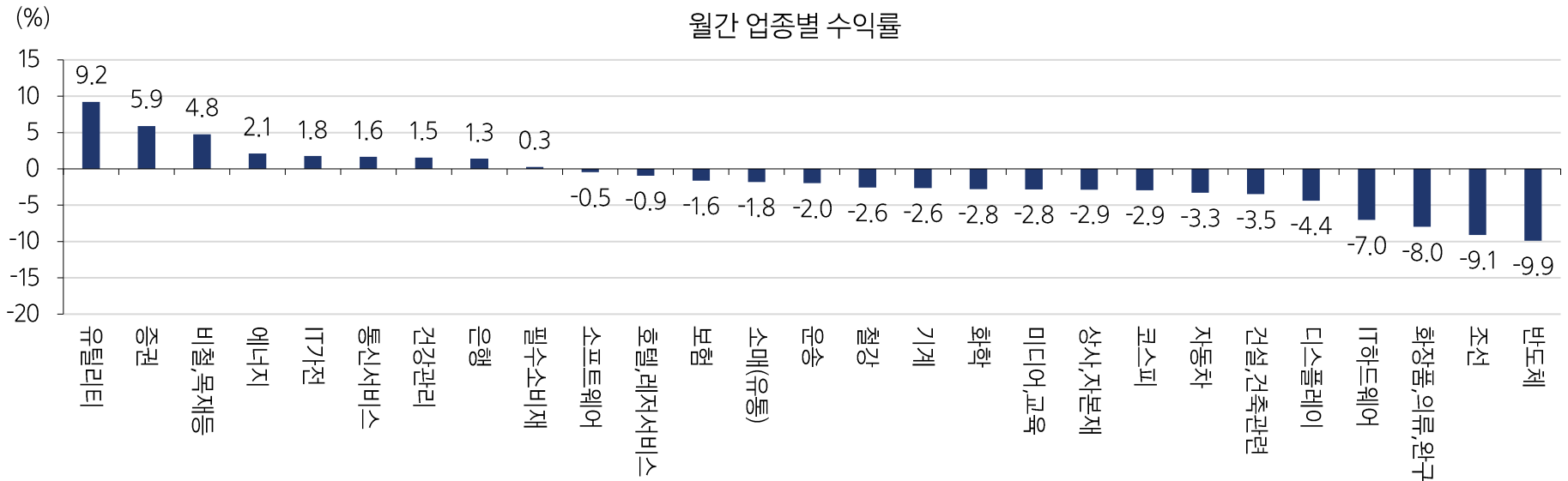
02

주식시장 전망(해외, 국내)

8월 코스피는 2.4% 하락. 반도체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부진한 수익률 기록

- 8월 한국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엔캐리 청산 등에 따라 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2.4% 하락
- 섹터별로는 외국인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반도체가 가장 낮은 수익률 기록

8월 KOSPI 섹터별 수익률



주: 8월 26일 기준, W126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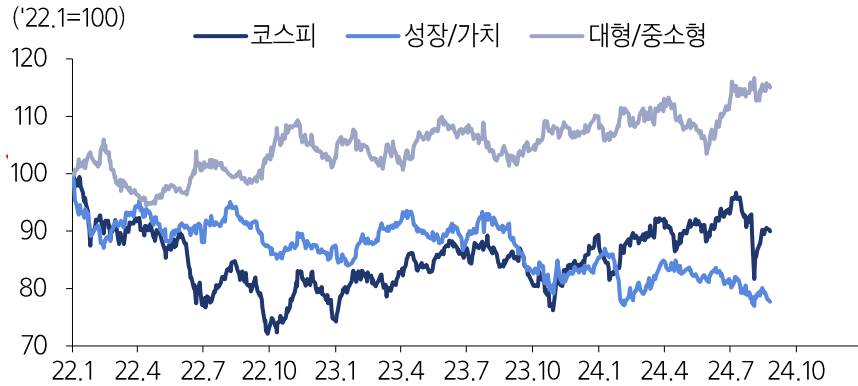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국내 주식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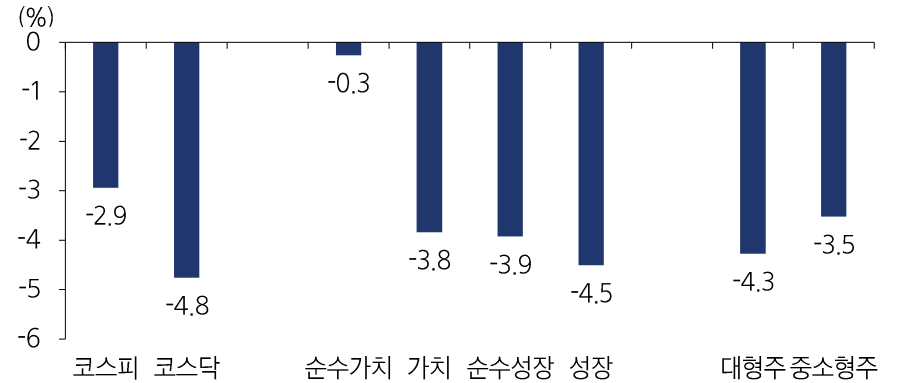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약세

중소형 가치주가 대형 성장주를 아웃퍼폼: 외국인 순매도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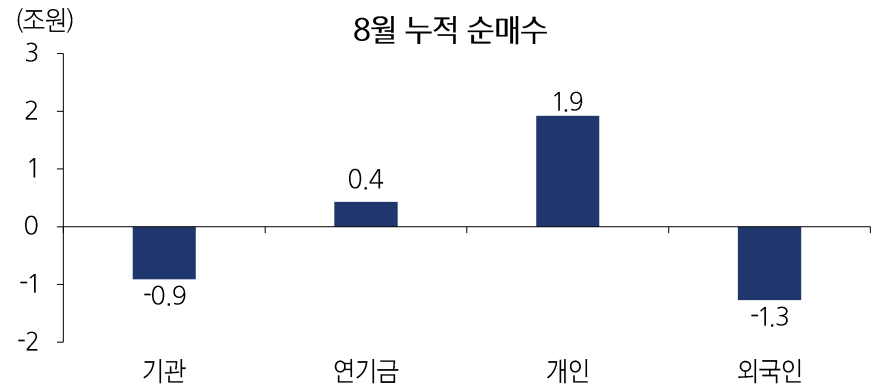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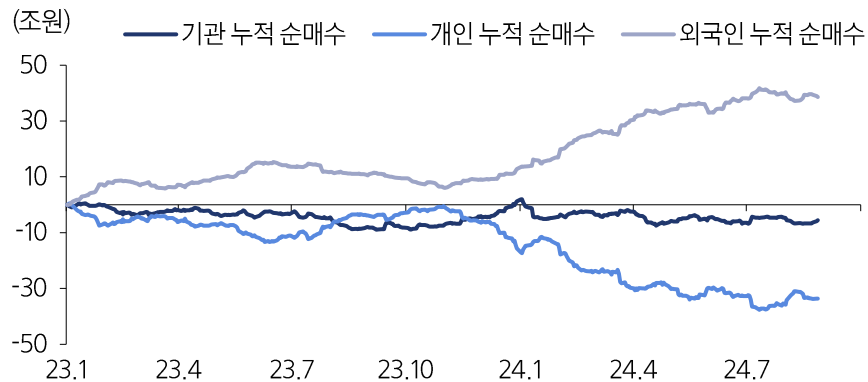
스타일 및 사이즈 상대주가지수 추이



스타일 및 사이즈별 수익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확대되자 외국인과 개인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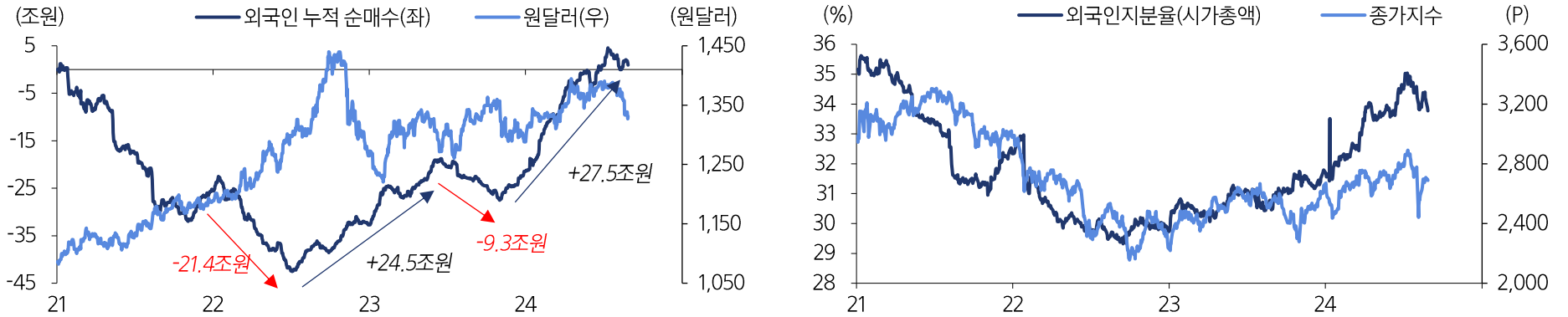
주: 7월 26일 기준, 자료: FnGuide,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국내 주식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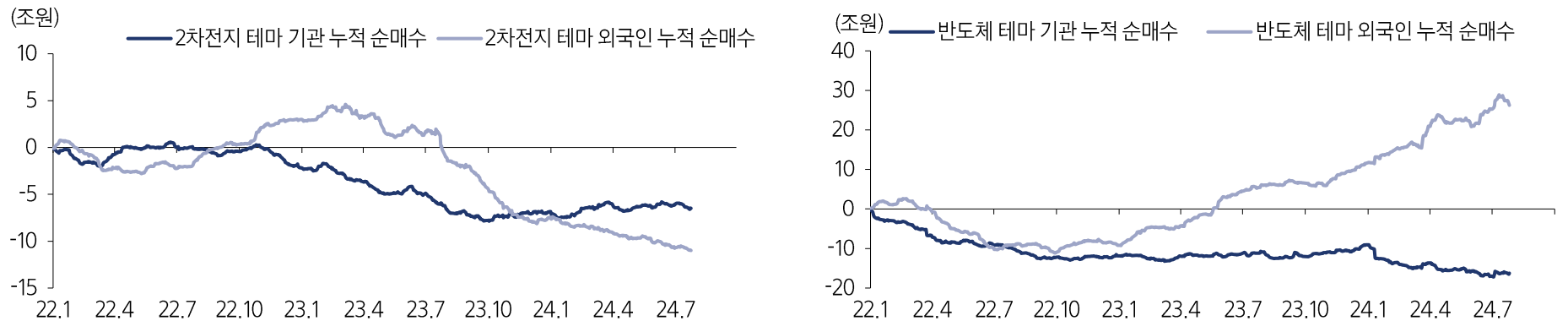
외국인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차익실현은 주의해야

대외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는 외국인들의 차익실현 매물을 주의해야

높아진 외국인 영향력, 대외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는 외국인 차익실현 매물에 주의해야



외국인은 2차전지를 순매도, 반도체를 최근 순매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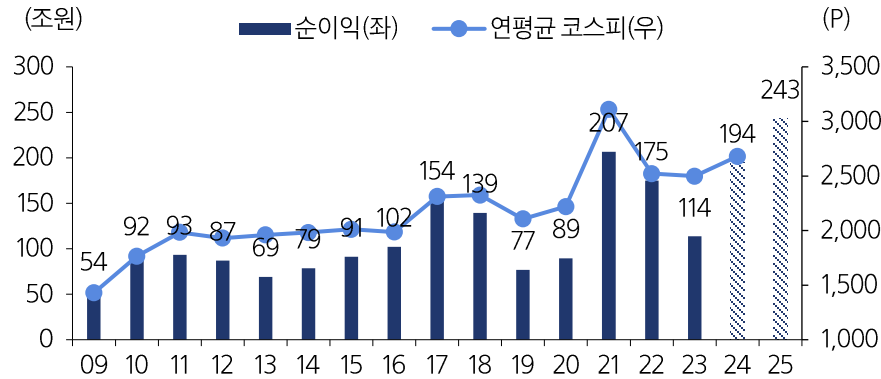
자료: 8월 28일 기준, Fnguide,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국내 주식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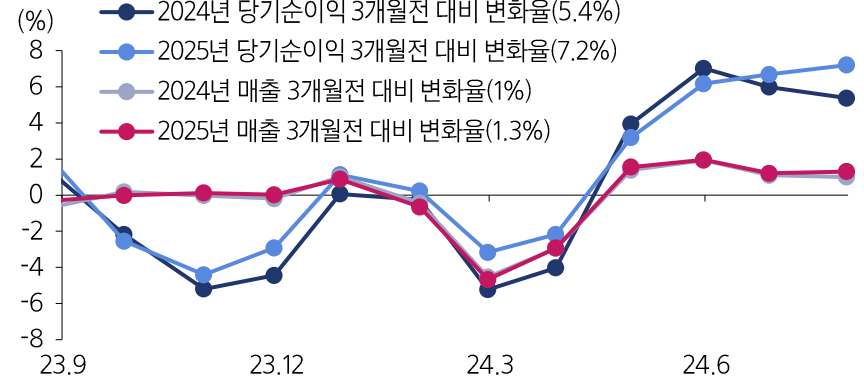
한국의 이익 성장은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

국내 주식시장의 회복 궤도는 주가지수의 추세적 상승보다는 하단을 견고히 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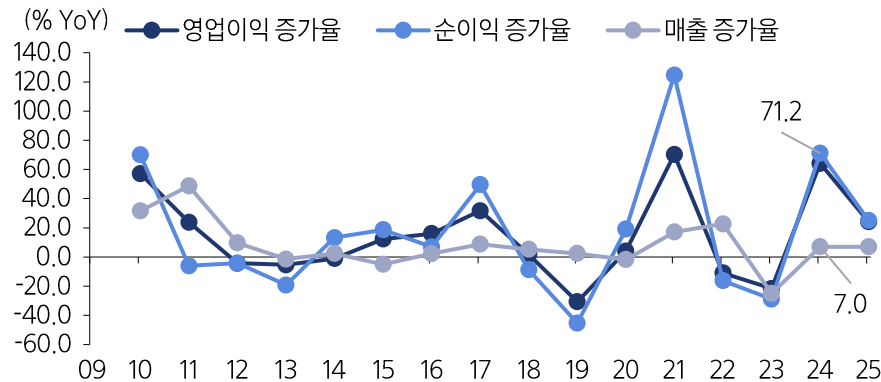
견조한 연간 EPS 성장률은 코스피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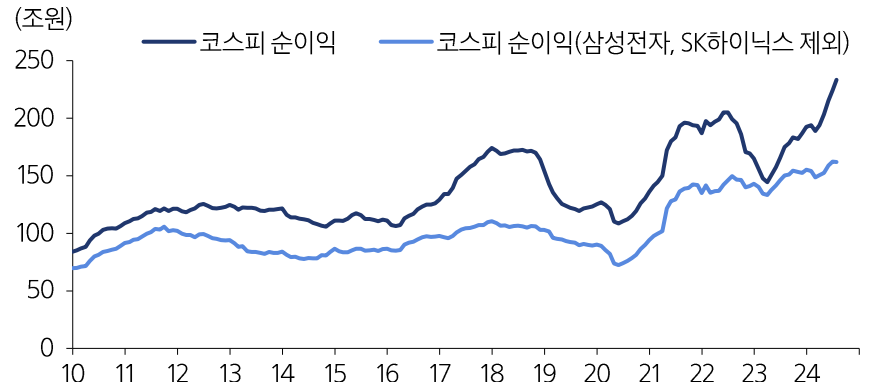
2024년 및 2025년 순이익은 최근 하락 전환



2024년 순이익 및 매출액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71.2%, 7.0%



반도체 주도 이익 성장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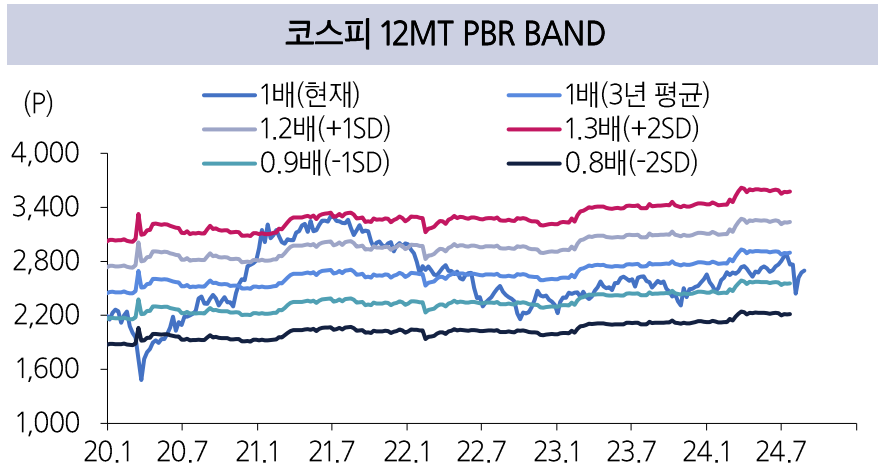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Refinitiv,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국내 주식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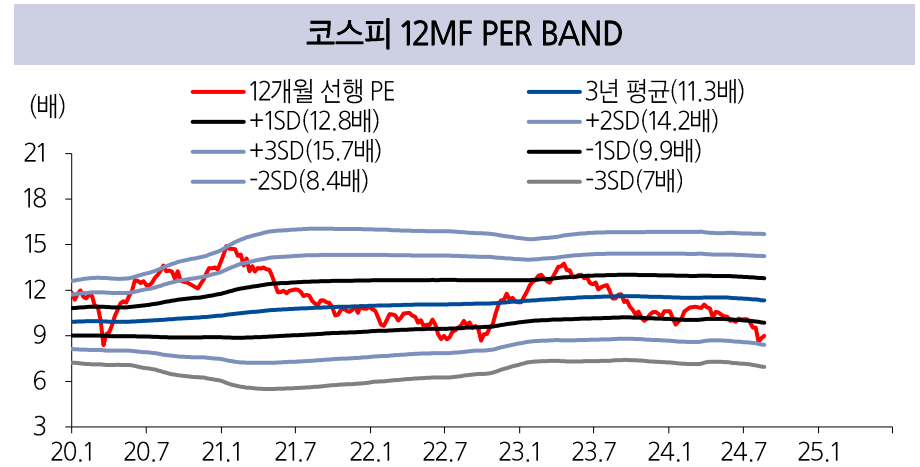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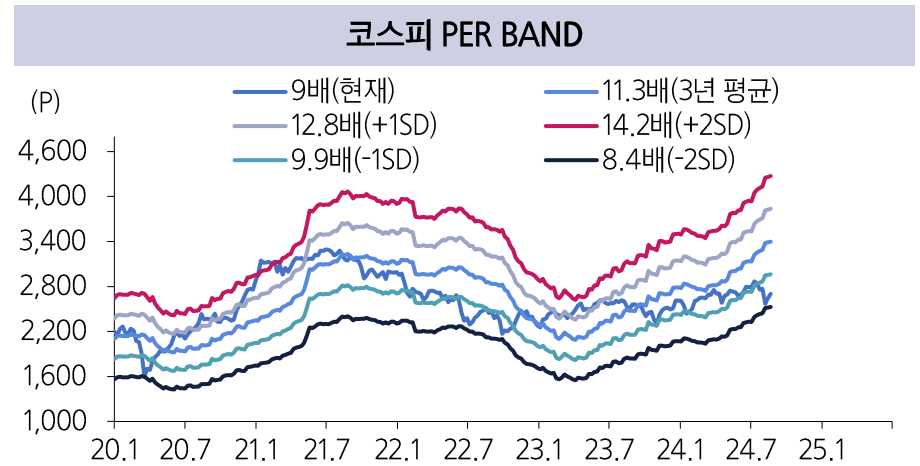
3개월 투자의견 중립 유지

대외 불확실성 vs 밸류업 프로그램 + 견조한 이익 → 연말까지 한국 증시의 박스권 흐름 전망

- 연말까지 코스피 밴드 2,550~3,100pt 유지
- 미 대선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엔캐리 청산 우려감, AI섹터 수익성 우려 등은 증시 밸류에이션 확대를 제한
- 한편 9월 중 기업 밸류업 관련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과 견조한 이익은 국내 증시의 하단을 지지
- 이로 인해 한국 증시는 연말까지 박스권 흐름을 보일 전망이며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



주: 8월 26일 기준, 자료: Refinitiv,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전략 및 투자프로세스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관련법령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투자전략 및 투자프로세스를 결정하므로, 본 자료에 기재된 사항 중 관련법령 및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